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의 체계성과 위계성에 대한 연구*

이관규**

〈 차례 〉

1. 머리말
 - 1.1. 문제 제기
 - 1.2. 국어사 교수 학습의 의의
2.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
 - 2.1.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사 관련 내용
 - 2.2.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사 관련 내용
3.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의 체계성과 위계성
 - 3.1.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의 선택 및 배열의 기준
 - 3.2.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의 체계성과 위계성
4. 맺음말

1. 머리말

1.1. 문제 제기

국어교육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나에 따라서 국어 지식 영역의 위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언어로서의 국어가 갖는 도구적 기능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을 강조하면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 국어교육의 목적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국어'가 갖는 문화적 내지 가치관적 특수 의미를 강조하면 국어 능력의 신장이 국어교육의 목적이 될 것이다.¹⁾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국어교육의 목적이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이라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국어'는 단순히 '영어'와 같이 도구적인 것만은 아니다. 즉, 국어교육은 도구적 성격과 가치관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어교육에서 교수 학습해야 할 내용을 크게 기능 요소와 문화 요소로 구분하는 경우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김대행(1995), 김광해(1997), 교육인적자원부(2002-) 참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국어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국어를 통해서 문화적 내용이 교수 학습된다는 것이다. 문화 요소를 이루는 분야는 문학과 국어 지식인 것으로 대개 알려져 있다. 국어로 쓰인 문학 작품을 통하여 당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국어 자체에 스며 있는 선인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국어에 대해서 교수 학습한다는 국어 지식 영역은 도구적 기능 요소들의 기초적인 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어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국어를 재료로 하는 문학 작품 이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경험중심주의 사조 하에서 국어교육

1) 학문중심주의 사조 하의 4차 교육 과정 시기인 1980년대 중반에는 국어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국어 지식 영역이 국어교육에서 중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어 지식이라 하면 곧 국어학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음운, 단어, 문장과 같은 공식론적 문법 내용이 국어교육에서 교수 학습되었으며, 통시론적 국어사 내용도 국어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는 중등 학교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5차 교육 과정 시기부터 7차 교육 과정 시기인 2004년 지금까지는 교육 사조에 있어서 경험중심주의가 강조되어, 결국 국어교육에서 국어 지식 영역의 위상이 많이 퇴보한 감이 없지 않다. 국어 지식 영역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과 같은 국어 응용 영역들의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는 영역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이에 국어학 내용에서도 통시적인 국어사 내용 같은 경우는 국어교육 현장에서 매우 경시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은 도구적 성격이 많이 강조되어 왔다. 국어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국어 지식 영역은 국어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약화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기초적 지식으로서의 국어 지식의 역할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어 지식이 다른 영역에 도움을 준다는 전체 하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국어 지식 영역에서는 종래의 순수한 국어학 내용뿐이 아니라 표준어나 맞춤법 같은 실용 차원의 내용들도 함께 교수 학습 내용에 포함하여 전체 국어교육 영역들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그 위상을 확인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1996, 2002-)).

그러나, 국어 지식 영역들 가운데 현대어가 아닌 옛말의 문법 내용이나 국어사 내용들은 도구적 기능 영역들에 별반 이바지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15세기, 17세기의 문법을 배웠다고 해서, 또 19세기 문법을 배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국어사 내용이 '부록'으로 들어가 있을 뿐, 그것도 교수 학습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달랑 참고 자료 정도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²⁾

1.2. 국어사 교수 학습의 의의

과연 국어사 내용은 국어교육에 이바지하는 게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국어사는 국어의 역사이다. 국어가 한민족(韓民族)이 사용하는 언어

2) 국어사라고 하면 국어의 역사를 뜻한다. 국어의 역사는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개화기 국어, 현대 국어가 계기적으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국어사 내용이라면, 이들 시기들의 국어 특징을 모두 보이고, 각각 문법 범주나 형태 내지 의미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현대 국어는 국어사 논의에서 제외되곤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시별 국어의 변천은 물론이고 현대 아닌 특정한 시기, 예컨대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개화기 국어 각각의 특징도 국어사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국어사 내용에는 현대 국어 이외의 모든 국어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한다. 이런 입장은 국어사 교육을 논한 김영욱(1997)이나 이도영(1998)에서도 마찬가지로 견지된다.

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국어 속에는 한민족의 사상이 담겨 있을 것이며, 그 사상은 곧 국어가 사용되는 시대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곧 국어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의 역사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교육의 한 축으로 문화 요소를 설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어사는 국어교육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 국어가 사용되던 시대상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인들이 갖고 있던 언어관,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건 물론이다.

그렇다면 국어사는 현재 이전의, 즉 과거의 문화, 가치관 이해에만 필요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예컨대, 17세기 국어의 모습을 안다면 당시에 쓰인 문학 작품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학습자들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생활상을 연극 등을 통해서 재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국어사 지식이 과거의 선인들 모습만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것은 아니다. 현대 국어에서도 15세기 때 사용되던 아래 아(·)가 제주도 방언에 남아 있다. 즉 지역 방언을 이해하는 데도 국어사 지식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상도 방언이 성조 언어로서의 특징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옛말의 문법이 현대말을 이해하는 데 유익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준다.

국어교육에서 국어사 내용이 필요하다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어사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교수 학습되어야 하는지이다. 본고에서는 국어교육에 필요한 국어사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현행 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국어사 관련 내용들에서는 그 선택과 배열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요컨대 필자는, 체계성 및 위계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국어사 내용은 어떤 것이면 좋을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제시되면 좋을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³⁾

3) 물론 국어교육 전체에서 국어사 위상은 얼마나 되는지, 국어 지식 영역에서 국어사 위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고구되어야 할 사항이나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참고로 이관규(1999)에서는 학교 문법 내용 체계를 지식, 사용, 태도 3개 대영역으로 나누고 지

2.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

국어교육에서 국어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배열되고 있는가? 현행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나타난 내용 항목과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사 내용을 통하여 그 실상을 알아보도록 한다.

2.1.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사 관련 내용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사 관련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인 '국어' 교과에는 구체적으로 3개의 국어사 관련 내용이 항목으로 나온다. 초등 학교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국어사 관련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고,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처음으로 (1ㄱ)에서처럼 언어의 역사성 내용이 나온다. 중학교 3학년 때는 (1ㄴ)에서처럼 남북한 방언 내용이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현대 국어의 공시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시한 것은 지역 방언 차원에서 국어의 변천 흔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사 내용으로 본격적인 것은 고등 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인 (1ㄷ)이다. 현대의 국어와 옛날 국어의 차이를 말하면서 구체적인 음운, 어휘, 문법, 의미상의 시대별 변화 양상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에 나타난 3개의 국어사 내용은 전체 교육 과정 내에서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인 '국어' 교과의 전체 세부 내용 항목이 345개인데, 이들 중 국어 지식 내용 항목이 47개이며, 거기서도 국어사 내용 항목은 달랑 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식 50%, 사용 40%, 태도 10%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식 영역 가운데 언어 일반 내용 5%, 현대말 문법에 대한 교수 학습 내용 40%, 국어사(옛말 문법 포함)에 대한 교수 학습 내용 5%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1) '국어'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사 관련 내용

ㄱ. 언어의 역사성을 안다. (8-(2))

[기본] ○ 옛말과 현재의 말을 비교하고, 옛말과 다른 현재의 말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심화]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에서 옛말의 흔적을 찾는다.

ㄴ.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안다. (9-(1))

[기본] ○ 남한에서 쓰는 말과 북한에서 쓰는 말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말한다.

[심화] ○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하여 토의한다.

ㄷ.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 (10-(2))

[기본] ○ 현대의 국어와 옛날 국어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한다.

[심화] ○ 국어의 음운, 어휘, 문법, 의미상의 시대적 변화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국어사 내용이 교육 과정상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국어 지식 내용을 심화하여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 학교 문법 과목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2)는 심화 선택 과목인 '문법'의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사 관련 내용인데, 전체 33개 세부 항목 가운데 국어사 관련 내용은 3개이다. 여기서도 문법 내용 가운데 국어사 관련 내용은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1)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추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문법' 교육 과정에서 (2ㄷ)에서처럼 한글의 가치를 다룬 것은 주목할 만하다.

(2) '문법'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사 관련 내용

ㄱ.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한다. (1-(나)-③)

ㄴ. 국어의 역사를 이해한다. (1-(다)-②)

ㄷ. 한글의 가치를 이해한다. (1-(다)-③)

(3)은 7차 교육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국어 생활' 교과목의 내용 가운데 국어사와 관련된 것이다. '국어 생활' 교과목은 국어 생활을 실천하

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어 생활' 교과는 전체 34개 내용 항목을 갖고 있는데, 그 중 국어사 관련 내용이 6개나 제시되어 있다. 엄밀히 말해서 (3)에 제시된 것들은 본격적 의미의 국어사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국어사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가 교육적 효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임은 분명하다. (3)에서 보듯이 국어 발전과 문학의 관계를 논한 것이나, 선인들의 언어관, 선인들의 발상 및 표현 방식을 제기한 것이나, 관용어, 수수께끼, 고유지명, 속담 등을 논한 것이나, 특히 국어의 우수성을 제시한 것은 국어사 내용이 국어교육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3) '국어 생활'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사 관련 내용

- ㄱ. 한국 문학과 국어 발전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한다. ((1)(타)(3))
- ㄴ. 선인들의 언어관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재발견한다. ((2)(나)(1)-(1))
- ㄷ. 전통적 수사, 완곡 어법과 직설 어법 등 선인들의 발상 및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재발견한다. ((2)(나)(1)-(2))
- ㄹ. 우리 고유의 삶의 방식이 반영된 관용어, 전통적 말놀이, 금지어, 수수께끼, 고유지명 등에 담겨진 국어 문화를 발견하고 이를 국어 생활에 발전적으로 적용한다. ((2)(나)(1)-(3))
- ㅁ. 속담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국어 생활에 적용한다. ((2)(나)(1)-(4))
- ㅂ. 국어의 우수성을 알고 그 발전 방향을 탐색한다. ((3)(나)(1))

이상 살펴본 바, 현행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사 관련 내용은 최소한의 내용만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어 생활'에서 조금 확대된 듯하지만, 본격적 의미의 국어사 내용 항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일 뿐이다. 본격적인 국어사 내용이라 하면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개화기 국어 내용이 문법 단위별로, 즉 음운, 어휘, 문장, 의미별로 제시되는 걸 말한다. (1), (2)에서 보듯이 단순히 '국어의 역사를 이해한다.' 정도는 상징적으로 들어간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왜 그런 내용을 넣었는지 또 그 내용들의 위계화는 어떠한지는 더더욱 알기 어렵다.

2.2.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사 관련 내용

교육 과정에 제시된 내용은 교과서에 그대로 구현되는 게 원칙이다. (1)에서 본 것처럼 초등 학교 시기에는 국어사 관련 내용이 교육 과정에 없었으며, 역시 교과서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국어사 관련 내용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발견된다. (4ㄱ)은 비록 문자 언어 차원의 내용이지만 문자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한글의 위상을 잡아주고 있으며, (4ㄷ) 역시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두 소단원은 비록 읽기 재료로서 한글 내용을 다룬 것이지만, 우리 문자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자 한 단원이라 할 수 있다.

국어사 내용의 일단은 (4ㄴ)에서 볼 수 있다. 언어의 역사성을 다룬 것으로 이는 교육 과정의 (1ㄱ)을 구현한 내용이다. 한편 (4ㄴ)은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것이고, (4ㄸ)은 남북한 언어에 대한 내용인데, (1ㄴ)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4ㄴ, ㄷ)은 고전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 국어사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시한 것이다. 대체로 볼 때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국어사 내용이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ㄱ, ㄴ) 교육 과정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4)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사 관련 내용

- ㄱ. 6. 언어의 세계: (2) 문자의 역사 <국어 1-1>
- ㄴ. 7. 문학과 사회: (1) 홍길동전 <국어 1-1>
- ㄷ. 3. 판단하며 읽기: (1) 훈민정음 완성되다 <국어 1-2>
- ㄷ. 3. 우리 고전의 맛과 멋: (1) 서동요 <국어 2-1>
- ㄴ. 3.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1) 국어의 언어적 특징 - 언어의 역사성 <생활 국어 2-1>
- ㄴ. 2. 중심 내용 파악하기: (1) 표준어와 방언 <국어 3-1>

사. 6. 남북한의 언어: (1) 남북한 언어의 차이, (2)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 <생활 국어 3-1>

국어사 내용이 국어 교과서에 제대로 드러난 것은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에서이다. (5ㄷ)은 바로 그런 구체적인 증거이다. (5ㄷ)에서는 대단원 명칭으로 '국어의 걸어온 길'이라 하여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또한 설명하고 있다. (5ㄷ)에서는 "·국어의 역사를 안다. ·국어의 음운·문법·의미·표기법의 시대별 변화상을 안다. ·국어의 변화 과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듣고 읽는다."라는 대단원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국어사 내용으로 '국어의 계통, 국어의 형성 ; 한글의 과학성, 중세 국어의 특징 ; 근대 국어의 특징, 개화기와 외래어의 증가, 한글의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보충 학습 자료로 세종 어제 훈민정음, 심화 학습 자료로 노걸대언해가 제시되고 있다.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5ㄷ)에서처럼 국어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은 (1ㄷ) 교육 과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5ㄴ)에서는 '옛날의 언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알아보는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 (5ㄱ, ㄴ, ㄹ, ㄷ)을 통해서는 고전 문학 작품 이해 및 감상에 옛말이 중요하게 사용되며, 나아가 국어사 교육이 고전 문학 작품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⁴⁾

(5)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사 관련 내용

- ㄱ. <국어(상)>6. 노래의 아름다움: (1) 청산별곡 (2) 어부사시사
- ㄴ. <국어(상)>8. 언어와 세계: (1) 동국신속삼강행실도
- ㄷ. <국어(하)>1. 국어가 걸어온 길: (1) 고대 국어 - ① 국어의 뿌

4) 박성종(1997)과 장윤희(2002)에서는 국어사 지식이 고전 문학 작품 이해 및 교육에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한편 고등 학교 문학 교과서 18종에는 더 많은 고전 작품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도록 한다.

리와 줄기, ② 고대의 국어 생활

(2) 중세 국어 - ① 세종 어제 훈민정음, ② 소학연해

(3) 근대 국어 - ① 동명일기, ② 독립 신문 창간사

ㄹ. <국어(하)>4. 효과적인 표현: <심화 학습> 사모곡, 자모사(慈母思)

ㅁ. <국어(하)>5. 감동을 주는 언어: 관동별곡

ㅂ. <국어(하)>7. 전통과 창조: 춘향전

국어사 관련 내용이 초등 학교 교과서에는 전혀 없고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조금 나타나고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많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심화 선택 과목인 고등 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매우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6)에서 보듯이 문법 교과서에는 한글에 대한 내용만이 소단원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깊이 있는 국어사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6ㄴ)에 제시된 국어사 내용은 체계가 잡혀 있으나 공식 단원으로 설정되지 않고 단순히 참고용 정도로 들어간 <부록> 일 뿐이다. 물론 <부록>으로 제시된 (6ㄴ)에는 매우 구체적인 국어사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 '1. 역사적 개관, 2. 옛말의 문법: 중세 국어 문법'은 물론이고 '국어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예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옛말의 문법' 내용은 중세 국어 문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1. 문자와 말소리, 2. 단어, 3. 문장, 4. 이야기'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고대 국어, 근대 국어, 개화기 국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6) 고등 학교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사 관련 내용

ㄱ. 1. 언어와 국어: 3. 국어와 한글

ㄴ. <부록>: 1. 국어의 옛 모습, 2. 국어의 변화

한편 일반 선택 과목인 '국어 생활' 교과서에도 국어사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국어사 관련 내용은 아니고, 교육 과정 (3) 내용에도 있듯이 문학 속에서의 국어사 관련 내용이나 전통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국어사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7ㄷ)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내보이고 있기도 하다. (3)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지만, '국어 생활'은 그 자체가 국어사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목은 아니다.

(7) 고등 학교 '국어 생활'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사 관련 내용⁵⁾

- ㄱ. I. 국어와 우리의 삶: 3. 국어 생활과 문화: (2)국문학과 국어의 발전
- ㄴ. III. 문화 속의 국어 생활: 1. 국어 생활과 전통 문화, 2. 생활 속의 문학 활동
- ㄷ. VI. 국어 생활과 국어 정신: 2.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

지금까지 살펴본 바, 국어과 교과서에 제시된 국어사 관련 내용들은 학제에 따라서 그 깊이가 더 깊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어사 내용들이 일정한 체계성을 갖고 제시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초등 학교, 중학교 때는 물론이고, 고등 학교 때도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으로 제시된 것이 적절한지는 깊이 고려되지 않은 듯하다.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5ㄷ)은 국어사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 시기별 국어 설명이 단편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이고, 더구나 고대 국어와 개화기 국어는 그 특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자료로 제시된 것들도 그 타당성이 얼마나 되는지 깊이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사 내용 체계가 그렇다 보니 그것들을 배열하는 위계성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ㄷ)에 서처럼 한 대단원에 모든 국어사 내용을 넣은 것부터가 그렇다. 결국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의 체계성과 위계성은 처음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5) 앞에서 든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국어 생활'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가 아니다. 현재 10개의 '국어 생활'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는 바,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은 김홍규·이관규·심상인(2002)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3.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의 체계성과 위계성

현행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에서는 체계성에 있어서나 위계성에 있어서나 일정한 기준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렇다면 국어사의 내용은 어떤 기준 하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또 그 내용들은 국어 교과서에 어떤 기준 하에서 위계적으로 배열되어야 할까?

3.1.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의 선택 및 배열의 기준

어떤 종류의 교육에서도 그렇겠지만 국어사 교육에서도 왜 가르치는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문화 요소 차원에서 그리고 가치관 교육 차원에서 국어사 교육이 자리매김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⁶⁾ 어떤 국어사 내용들을 선택할 것이고 또 그 내용들을 어떻게 배열하는 게 교수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인지 모색하여야 한다. 이처럼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의 선정 기준으로, 무엇을 정해야 하는가라는 선택(選擇)의 문제와 선택된 내용 항목을 어떤 순서로 배열하여 교수 학습해야 하나 하는 배열(排列)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⁷⁾

선택의 문제라 하면 곧 선택된 내용 항목들이 개개 나름대로 유의미적이면서도 체계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내용의 체계

6) 교수 방법과 평가의 문제는 다른 논문을 기약하도록 한다.

7) 교수 학습 내용 선정에 있어서 선택과 배열의 문제는 비단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문법 교수 학습 내용 전체에 해당할 수도 있고, 나아가 국어교육 내용 선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아니 어쩌면 교수 학습되는 모든 내용 선정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선택된 내용은 체계성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은 교수 학습에서 위계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용의 체계성과 위계성이라는 말 속에는 선택과 배열의 타당성이라는 뜻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이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체계성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유의미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용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면 선택의 내용이 합목적성(合目的性, fitness), 유용성(有用性, usefulness), 빈도성(頻度性, frequency)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합목적성 기준은 교육 목표 달성에 합당한 내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유용성 기준은 실제 국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빈도성 기준은 많이 나오는 내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학습자가 느끼는 흥미성(interest)도 내용 선택의 조건으로 추가해 볼 수 있다.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면 현대 국어와 관련 있는 내용일 것이며, 반대로 현대 국어와 완전히 달라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 기준 가운데 합목적성과 유용성 기준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옛말의 문법에 대해서는 현대인이 직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 목표에 맞추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합당하고 실제 국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어사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물론 지식 습득 및 이해이다. 국어사 지식을 학습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옛말로 되어 있는 문헌이나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옛말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지역 방언을 이용한 학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국어사 지식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곧 빈도성이나 흥미성 기준보다 합목적성과 유용성 기준이 국어사 교수 학습의 내용 선택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 준다.

물론 빈도성 기준도 매우 중요하다. 국어사 교수 학습에서는 일정한 교육 목표에 따라서 교수 학습 자료가 선택이 될 터인데 교육 내용이 많이 나오는 자료가 제시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빈도성은 부차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이고, 유용성이 국어사 교육 내용 선택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성 기준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용성이나 빈도성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용성과 빈도성을 옆에서 보조해 주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다음 (8)처럼 정리해 볼 수 있다.

(8) 국어사 내용 선택의 기준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 선택의 기준으로 유용성, 빈도성, 흥미성을 들 수 있다. 그 중 교수 학습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용성이 먼저 고려될 사항이다. 흥미성은 현대 국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달라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성이다. 흥미성은 유용성과 빈도성을 보조해 주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국어사 교육 내용으로 체계성 있게 선택된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열되어야 하나? 선택된 내용들은 교수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이는 내용 배열의 위계성(grading)을 얘기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어떤 순서로 교수 학습 해야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내용 배열의 위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흔히 단순성, 학습 가능성, 교수 가능성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성(simplicity) 조건은 간단한 것을 먼저 가르치라는 것이고, 학습 가능성(learnability) 조건은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가르치라는 것이고, 교수 가능성(teachability) 조건은 설명하기 쉬운 것을 먼저 가르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위계적으로 배열할 때는 간단한 것, 학습하기 쉬운 것, 가르치기 쉬운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가치성(valuability) 조건을 더 추가해 볼 수 있다. 가치성은 복잡하여 교수 학습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걸 먼저 배열해야 한다는 기준이다.⁸⁾

이 네 가지 기준은 일반적인 교수 학습 내용 배열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어사 교육의 내용 배열 기준은 어떠할까? 물론 이 네 가지 기준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가치 있고 가르치기 쉽고 배우기 쉽고 간단한 내용이 먼저 교수 학습되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말이다. 국

8) Thornbury(1999: 9~10)에서는 위계성의 조건으로 복잡성(complexity), 교수 가능성, 학습 가능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연구자는 복잡성이라는 말 대신에 단순성이 더 낫다고 본다. 다른 두 기준이 긍정적 가치를 띠고 있어서 부정적 가치를 띠는 복잡성은 단순성으로 표현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더불어 연구자는 가치성을 덧붙여야 한다고 본다. 가치성은 그 어떤 기준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어사 교육의 목표가 일차적으로는 지식 습득이며 이차적으로 옛말 문헌을 이해한다거나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에 기여하는 것 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교수 가능성과 학습 가능성은 그 가치의 선후를 따지기 어렵다. 국어사 교육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국어사 이해 증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교수 가능성보다는 학습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단순성 기준도 교수 가능성과 학습 가능성과 궤를 같이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용이 단순할수록 가르치기도 쉽고 배우기도 쉬울 것이라는 것이다. 그 어떤 조건보다도 앞서는 것은 가치성이다. 아무리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 하더라도 교육의 가치가 없으면 교수 학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9) 국어사 내용 배열의 기준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 배열의 기준으로 단순성, 학습 가능성, 교수 가능성, 가치성을 들 수 있다. 교수 학습의 가치가 있는 가치성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은 물론이다. 교수 가능성과 학습 가능성 기준은 학제와 학습자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단순성 기준 역시 이들과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교수 학습이라면 교수 가능성보다는 학습 가능성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3.2.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의 체계성과 위계성

3.2.1. <교수 학습 내용의 체계성>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여기서 앞에서 제시한 내용 선택의 기준과 내용 배열의 기준을 염두에 두고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 하나하나를 살피기로 한다. 앞서 제2장에서는 중학교와 고등 학교 국어과 교과서에 제시된 국어사 관련 내용들을 살펴본 바 있다.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제시하면 다음 (10)과 같다.

(10)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 제시된 국어사 내용

- ㄱ. 문자의 역사, 훈민정음 완성되다, 국어의 언어적 특성(언어의 역사성), 표준어와 방언 : 홍길동전, 서동요
- ㄴ. 고대 국어(국어의 뿌리와 줄기, 고대의 국어 생활), 중세 국어(세종어제 훈민정음, 소학언해), 근대 국어(동명일기, 독립 신문 창간사), 노걸대언해 : 청산별곡, 어부사시사, 동국신속행실도, 사모곡, 자모사, 관동별곡, 춘향전
- ㄷ. 국어와 한글 : 국어의 옛모습, 국어의 변화
- ㄹ. 국문학과 국어의 발달, 국어 생활과 전통 문화, 생활 속의 문학 활동,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

(10ㄱ)은 중학교 국어, 생활 국어 교과서, (10ㄴ)은 고등 학교 국어(상), 국어(하) 교과서, (10ㄷ)은 고등 학교 문법 교과서, (10ㄹ)은 고등 학교 국어 생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국어사 관련 내용이다. 현행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국어사 내용은 크게 다섯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①국어사 내용 자체를 제시한 것, ②국어사 내용을 옛날 글과 함께 제시한 것, ③고전 작품을 제시한 것, ④국어 생활 속에서 국어사 내용을 녹여낸 것, ⑤국어사 관련 내용을 설명문으로 제시한 것 등이다. ①은 (10ㄷ)의 '국어의 옛모습, 국어의 변화', ②는 (10ㄴ)의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부분, (10ㄷ)의 동국신속행실도, ③은 (10ㄱ)의 홍길동전, 서동요, (10ㄷ)의 청산별곡, 어부사시사, 사모곡, 자모사, 관동별곡, 춘향전, (10ㄹ)의 일부, ④는 (10ㄷ) 중 국어 생활과 전통 문화 부분, 즉 전통적 수사, 완곡 어법과 직설 어법, 관용어, 전통적 말놀이, 금기어, 수수께끼, 고유 지명, 속담 등이 해당한다. ⑤는 (10ㄱ) 앞 부분에 있는 내용과 (10ㄹ)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어사 교육 내지 그 내용을 논한 연구는 많지가 않다. (11)에 제시된 것이 거의 전부인데, (11ㄷ, ㄹ) 정도가 국어사 교육을 직접 다룬 논의일 뿐, 다른 것들은 전체 문법 교육 내용을 논한 가운데 잠깐 나온 국어사 관련 내용이다. 그렇지만 (11ㄷ, ㄹ)도 국어사 교육이 필요하

다는 걸 강조하는 차원의 논의일 뿐이며, 그 가운데 국어사 분야에서 교수 학습해야 한다고 느끼는 내용을 간략히 범주화한 것이다. (11)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중세 국어에 대한 교수 학습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그 핵심에 훈민정음(또는 한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국어의 역사와 관련하여 시기별 국어의 특징이 들어가 있다. 더불어 옛말의 특징이 현재의 국어 생활과 연결되어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11)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국어사 내용

- ㉠ 권재일(1995) : 국어의 계통 / 국어의 역사(시대 구분, 음운 변화, 어휘 변화, 문법 변화) / 국어의 문자(문자 일반, 차차 표기, 훈민정음의 이해,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
- ㉡ 김광해(1997) : 우리말의 역사 / 한글의 역사 및 가치 / 우리말을 빛낸 인물
- ㉢ 김영옥(1998) : 국어의 계통에 대한 이해 / 훈민정음 이전의 문자 체계에 대한 이해 /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 / 중세 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 / 근대 국어의 자료에 대한 이해 / 맞춤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
- ㉣ 이도영(1999) : 국어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는 내용 /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과 관련된 내용 /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와 관련된 내용
- ㉤ 이관규(1999) : 중세 국어 문법 / 국어의 계통 / 국어의 역사
- ㉥ 민현식(2002) : 옛말의 문법 / 우리말의 변천 / 국어 문화사

(10), (11) 전체를 통해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으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국어의 역사라는 내용을 설명문 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거기서는 국어의 계통 문제와 국어사의 시대 구분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략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둘째, 개별 시기별로 국어의 특징이 제시되고 그에 맞추어 옛말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나아가 개화기 국어의 특징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세

국어를 설명하는 가운데 훈민정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국어와의 관련성에서도 그렇고 국어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넷째, 각 시기별 국어 특징을 논하면서 고전 문학 작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국어사와 문학의 통합 교육이라는 점에서도 이는 유용하다. 다섯째, 현재의 국어 생활과 관련 있는 국어사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속담이나 관용어 등 옛말을 이해해야 현재의 쓰임에 대해 알고 또한 정확히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국어사 교수 학습의 내용 체계

- ㄱ. 국어가 걸어온 길 : 국어의 계통, 시대 구분을 설명문 형식으로 제시
- ㄴ. 시기별 국어 특징 :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개화기 국어의 특징을 말하고, 그에 따른 옛글 제시
- ㄷ. 훈민정음 및 그 우수성 : 중세 국어 및 현대 국어를 직접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 제시
- ㄹ. 옛말과 현대말을 관련시킬 수 있는 표현들 : 관용어, 속담, 수수께끼, 방언 등 제시
- ㅁ. 고전 문학 작품 : 각 시기별 국어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을 장르를 고려해서 제시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12)와 같다. 이 내용들은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 선정의 기준인 유용성, 빈도성, 흥미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말의 역사를 알고 시기별 특징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현재의 국어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한글이나 관용어, 속담 표현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그렇다는 것이다. 크게는 국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응용이라는 차원에서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3.2.2. <교수 학습 내용의 위계성> (12)와 같은 국어사 교수 학습의 내용들은 어떤 순서로 교수 학습하는 게 좋은가?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교과서에 배열하면 좋은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⁹⁾ 국어사 내용은 국어 교과서, 문법 교과서, 국어 생활 교과서 등 교과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배열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염두에 두고자 한다. 현행 국어 교과서는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국어(상), 국어(하) 2권을 2년 동안 교수 학습한다는 전제 하에서 살피기로 한다. 특히 고등학교 학습자들을 염두에 두는 것은 문법 분야가 지식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⁰⁾ 물론 (9)에서 제시한 가치성, 학습 가능성, 단순성, 교수 가능성 등 여러 기준이 어울려 국어사 내용이 위계적으로 배열될 것이다.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을 위계적으로 배열한 결과는 다음 (13)과 같다. 실제로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곤 하는 속담, 관용어, 수수께끼 같은 내용을 재구성해서 옛말의 가치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훈민정음의 성격과 가치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말이 변천해 온 역사를 명확하면서도 간략하게 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각 시기별, 즉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개화기 국어의 특징들을 간략히 보면서, 그것들이 사용된 문헌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사용되는 문헌은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13)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의 위계화 순서

1. 옛말과 현대말을 관련시킬 수 있는 표현들 : 관용어, 속담, 수수께끼, 방언 등 제시

9) 엄밀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교수 학습하는가의 문제와 어떻게 교과서에 배열하는가의 문제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가르치고 무엇을 나중에 가르친다는 점에서 보면 동계로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10) 중학교는 3년간의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국어사 내용이 교수 학습되는 위계성은 본질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이나 마찬가지다. 단지 내용의 심화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문법 교과서는 학교 문법 내용만을 다루고, 국어 생활 교과서는 실천적 국어 생활에 집중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ㄴ. 훈민정음 및 그 우수성 : 중세 국어 및 현대 국어를 직접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 제시
- ㄷ. 국어가 걸어온 길 : 국어의 계통, 시대 구분, 설명문 형식 제시
- ㄹ. 시기별 국어 특징 :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개화기 국어의 특징을 말하고, 그에 따른 옛글 제시
- ㄹ. 고전 문학 작품 : 각 시기별 국어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을 장르를 고려해서 제시

(13ㄱ~ㄹ)의 위계화 순서를 든 것은 교수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성, 가치성, 학습 가능성, 교수 가능성 가운데, 학습 가능성과 단순성을 먼저 주목해 본 것이다. (13ㄱ)을 통해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단순한 내용을 가볍게 먼저 다룬다는 것이고, 이어 (13ㄴ)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교수 학습하면서 훈민정음에 대해 살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말의 뿌리를 (13ㄷ)을 통해 보이고, 결국 (13ㄹ)을 통해 각 시기별 국어의 특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13ㄹ)은 국어사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건 아니나 그 내용들이 잘 반영되면서도 문학적 가치가 있는 고전 작품이 교수 학습됨으로써 학습자들이 학습한 국어사 지식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단계에 국어사 교육의 가치성이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하다.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 가능성과 단순성이 먼저 고려되었고, 교수 가능성은 뒤로 빠진 느낌이다. 그러나 최소한 학교에서 교수 학습되는 국어사 내용에 대해 교사가 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거의 전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는 교수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건 물론이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학습자에게 전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 가능성이라 하면 무능력 문제가 아니라 교수의 용이성 문제임은 물론이다.¹¹⁾

고등 학교 수업 2년 동안 국어사 내용이 들어가는 걸 전제했는데, (13ㄱ, ㄴ) 정도가 1차 연도에 들어갈 것이고, (13ㄷ, ㄹ)은 2차 연도에

11) 이런 측면에서 교사가 어떤 식으로 연구해서 교수 학습 계획안을 작성하고 수업에 임해야 하는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3口)은 모든 단계가 끝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나, 국어사 내용이 반영된 정도 여하에 따라서 1차 연도에는 2차 연도에는 제시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고전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시기별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현대 국어와 가까운 것이 먼저 들어가는 게 교육적 효율성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특별한 국어사 지식이 없더라도 현대 국어가 많이 나온 작품은 이해하기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¹²⁾

4. 맺음말

지금까지 국어사 교수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는 기준과 배열하는 기준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그 내용이 어떤 체계성과 위계성을 갖고 선택, 배열되는 게 좋은지 살펴보았다. 그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① 국어교육에서 국어 지식 영역이 그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어사 내용도 우리 문화의 이해 및 풍부한 국어 생활이라는 점에서 그 교수 학습의 가치가 인정된다. 그런데 현행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은 일정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제시된 감이 없지 않다. 중학교 국어, 생활 국어,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국어 생활 교과서에 제시된 국어사 내용은 학제별 내용 체계에 있어서나 학년별 위계성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

② 국어사 교수 학습의 내용은 교육 목표에 이바지하는가를 중시하는 합목적성, 실제 국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성, 많이 나오는 것을 중시한다는 빈도성, 학습자가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흥미성을 기준으

12) 사실 (13) 국어사 내용은 수업 시수 정도에 있어서 배당이 달라야 한다. 아마도 (13) 내용 교수 학습에 가장 많은 수업 시수가 필요할 것이다. 단계별 수업 시수 배당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로 하여 선택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합목적성이겠지만, 실제적 국어사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용성도 매우 중요하다. 흥미성은 유용성과 빈도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내용의 체계성을 만족시킨 국어사 내용 체계로는 '국어가 걸어온 길, 시기별 국어 특징, 훈민정음 및 그 우수성, 옛말과 현대말을 연결시킬 수 있는 표현들, 고전 문학 작품' 등을 들 수 있다.

③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하는 위계성 문제는 가치성, 학습 가능성, 단순성, 교수 가능성 기준을 적용하여 해결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학습 가능성과 단순성을 앞 자리에 놓을 수 있다. 가치성은 모든 단계에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어사 내용을 위계적으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옛말과 현대말을 관련시킬 수 있는 표현들, 훈민정음 및 그 우수성, 국어가 걸어온 길, 시기별 국어 특징, 고전 문학 작품' 등이다. 이것들은 학제별 단위로 배열하는 게 낫다고 본다. 중학교 국어라면 그곳에서 일단락시키고, 또 고등학교 국어라면 거기서 일단락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각 내용들의 심화 정도나 성격에 따라 수업 시수나 제시 방법 등은 달라질 수도 있다. 한편 문법 교과서나 국어 생활 교과서에서의 배열 방식은 과목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④ 지금까지 체계성과 위계성을 중심으로 하여,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의 선택과 배열의 기준과 그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위 내용 항목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는 그 다음 과제이다. 설명문은 어떤 식으로 기술할 것이며 그 깊이는 어느 정도로 할지, 또한 시기별 국어 특징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제시할지 등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고전 문학 작품은 어떤 것들을 제시할지 국어사 가치뿐만 아니라 문학성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해결한 것보다 해결해야 할 것이 더 많은 듯하다.*

* 본 논문은 2004. 6. 25. 투고되었으며, 2004. 7.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4. 9. 24.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부(1997), 『제7차 교육 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1ㄱ), 『중학교 국어 (1-1, 1-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1ㄴ), 『중학교 생활 국어 (1-1, 1-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2ㄱ), 『중학교 국어 (2-1, 2-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2ㄴ), 『중학교 생활 국어 (2-1, 2-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ㄱ), 『중학교 국어 (3-1, 3-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3ㄴ), 『중학교 생활 국어 (3-1, 3-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1996), 『고등 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2002ㄱ), 『고등 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2002ㄴ), 『고등 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2002ㄷ), 『고등 학교 국어(상),(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권재일(1995), "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언어 지식 영역 지도의 내용", 『국어교육연구』 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대행(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 출판부.
- 김영옥(1998), "국어사 교육은 과연 필요한가?" 『선청어문』 2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김홍규·이관규·심상인(2002), 『고등 학교 국어 생활』, (주)천재교육.
- 민현식(2002), "국어 지식의 위계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 108,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박성중(1997), "고전 교육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국어교육』 96,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박영순(1998), 『한국어 문법 교육론』, 박이정.
- 신명선(2000), "초등 학교 국어 지식 교육의 방향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10, 국어교육학회.
- 이관규(1999, 2002), 『(개정판) 학교 문법론』, 월인.
- 이관규(2001), "학교 문법 교육에 있어서 탐구 학습의 효율성과 한계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 『국어교육』 106,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이관규(2002), "국어 지식 영역의 연구 현황과 과제", 『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이관규(2003), "국어 지식 교육의 평가 내용과 방법의 현황 및 문제점", 『이중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 이관규·김리연·윤정민·서수현·김지연(2004) 옮김,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문화사.
- 이도영(1999),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서의 국어사", 『선청어문』 2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

교육과.

이춘근(2001), "문법 교육 내용의 계열화 분석 및 평가", 『국어교육학연구』 12, 국어교육학회.
장윤희(2002), "국어사 지식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 『국어교육』 108, 한국국어교육연구
학회.

Hagemann, J. A.(2003), Teaching GRAMMAR. Pearson Education, Inc.

Hinkel, E & Fotos, S.(eds)(2002), New Perspectives on Grammar Teaching in
Second Language Classroom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MIT, New Jersey.

Thornbury, S.(1999), how to Teach Grammar. England: Pearson Education
Limited.

〈초록〉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의 체계성과 위계성에 대한 연구

이관규

본고에서는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을 선택하는 기준과 배열하는 기준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그 내용이 어떤 체계성과 위계성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국어사 교수 학습의 내용은 유용성, 빈도성, 흥미성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용성이며, 흥미성은 유용성과 빈도성을 보조한다고 할 수 있다.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치성, 학습 가능성, 단순성, 교수 가능성 기준을 적용하여 해결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학습 가능성과 단순성을 앞에 놓을 수 있으며, 가치성은 모든 단계에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택과 배열의 기준을 적용하여 국어사 내용을 위계적으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옛말과 현대말을 관련시킬 수 있는 표현들, 훈민정음 및 그 우수성, 국어가 걸어온 길, 시기별 국어 특징, 고전 문학 작품' 등이다. 이것들은 학제별 단위로 배열하는 게 좋다. 물론 각 내용들의 심화 정도나 성격에 따라 수업 시수나 제시 방법 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 선택, 배열, 체계성, 위계성

〈Abstract〉

A Study on System and Hierarchy
in Contents of Korean History Education

Lee, Kwan-kyu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system and grade in education contents in korean language history. The criteria of selecting contents are fitness, usefulness, frequency, interest. Fitness and usefulness are very important. And criteria of grading contents are learnability, simplicity, valuability, teachability. Learnability and simplicity are important, and valuability based on all education.

Results of reflecting on system and hierarchy are as follows: expressions relating modern language and old language, hunminjeongeum(or hangeul) and its superiority, history of korean language, korean characteristics in various periods, old korean literature. These contents can be graded according to school systems. Of course, teaching periods and methods will be changed according to deep degre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contents.

【key words】 korean history education contents, selecting, grading, system, hierarchy